

영웅주의와 기사도에 투영된 설전(flyting)의 형태에 관한 고찰*

이 동 일

차 례

- I. 들어가는 글
- II. 영웅주의 행동철학
- III. 운페르드와 베오울프의 설전
- IV. 기사도(the Code of Chivalry)에 투영된 설전의 양상
- V. 결론

I. 들어가는 글

고대 영웅시의 대표작인 『베오울프』(*Beowulf*)에서는 영웅주의(heroism)가 그리고 중세로망스의 백미(白眉)로 불리는 『가윈경과 녹색기사』(*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에서는 기사도(the code of chivalry)라는 특별한 행동 규범이 작품의 핵심 주제로 다루어진다. 『베오울프』는 5세기경의 스칸디나비아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영웅담이 영국 섬으로 건너와 대략 8-10세기에 이르러 글로 정착되게 된다. 반면 영국의 중서부를 배경으로 하는 『가윈 경과 녹색기사』는 14세기 후반에 한 무명 시인에 의해 작성된다. 이 두 시는 먼저 고대 영문학시대(7세기-11세기)와 중세(11세기-15세기)라는 시대 구분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동시에 고대영웅시(epic)와 중세로망스(medieval romance)라는 장르에서도 현저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와 장르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 두 시에는 간과할 수 없는 많은 공통점이 발견된다. 14

* 본 연구는 2013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진행되었음.

세기 말에 완성된 『가윈 경과 녹색기사』는 5세기 무렵 영국 섬을 중심으로 활약한 브리튼 족의 족장이었던 아더의 전설을 배경으로 깔고 있다. 즉, 『가윈 경과 녹색기사』의 시작(詩作) 시기는 14세기 후반이지만 작품의 배경은 서사시 『베오울프』가 구전문학 형태로 영국 섬에 전해진 6-7세기와 큰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작품의 비슷한 시대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가윈 경과 녹색기사』에서 다루어지는 줄거리 묘사는 5-6세기와 사뭇 다른 14-15세기 영국의 전형적인 궁정모습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베오울프』에서 다루어지는 영웅주의는 군주와 신하 사이에 체결되는 목시적 계약관계를 근간으로 하며, 여기에는 충성과 복수 그리고 명예와 자존심 또한 수치를 둘러싼 영웅심리가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고대 영웅시의 행동규범이 중세의 로망스 문학인 『가윈경과 녹색기사』에서 다루어지는 기사도와 일맥상통함을 보이고 있어 이 두 작품 사이, 더 나아가 영웅시와 중세의 로망스 사이에 존재하는 문학적 상이점과 동질성에 대한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명예를 둘러싼 공통된 행동규범을 다루는 외에도 이 두 작품은 주제를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고대영웅시에서 자주 발견되는 ‘설전(flyting or verbal sparring)’ 혹은 ‘자존심 꺾기’와 같은 독특한 기법을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대영웅시 『베오울프』와 중세 로망스 문학인 『가윈경과 녹색기사』를 통해 영웅주의와 기사도에서 다루어지는 명예와 자존심을 둘러싼 행동철학을 규명하며 동시에 두 작품 속에 도입된 다양한 형태의 설전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영웅주의 행동철학

『베오울프』는 5-6세기의 북구 스칸디나비아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작품 속에 흐르는 행동철학 및 도덕적 기조는 고대 및 중세의 게르만 사회의 도덕규범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시대의 사회를 존속시키는 힘은 다름 아닌 코미타투스(*comitatus*)로써 이는 왕이나 군주와 신하 혹은 용사들 간의 쌍방간의 신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이 어휘는 국가가 형성되기 이전

의 주로 혈족 중심의 소규모 사회 집단에 있어서 왕 혹은 족장을 중심으로 결속된 일군의 정예용사나 귀족을 의미한다. 또한 왕과 소수 정예용사 집단 간의 관계를 지칭하는데 주로 정신적 기초- 왕은 평화 시에 용사들에게 보물을 하사하고 용사들은 충성 맹세를 행하며 전투에서 행동으로 실천한다-인 상호계약 관계를 의미한다. 이 도덕률에 따르면 개별성 혹은 개인성은 별 의미를 지니지 못하며 오직 친족과 군주와의 관계 속에서 집단 속에서 사회적 기능과 존재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Lee 173). 왕은 법적이고 경제적인 안정을 보장하며 용사들은 이에 대한 대가로 왕과 자신들이 소속해 있는 집단의 안위를 위한 병역의무를 완수하게 된다(Ker 260-63). 이러한 상호계약은 대부분 왕과 용사 사이의 극히 사적인 관계이며 많은 경우 물질을 기반으로 한다. 이와 같은 상호조약을 암시하는 구절은 『베오울프』에서 반복되며 시의 일관된 주제를 형성한다. 용과의 최후의 전투에서 왕 베오울프의 용사들은 숲으로 도망하게 된다. 그러자 베오울프의 충성스런 용사 위그라프(Wiglaf)는 왕 베오울프가 그들에게 하사했던 보물과 왕과 국가를 지키겠다고 그들의 맹세를 상기시키며 그들의 비겁함을 꾸짖는다(Beo 2633-38). 또한 바이킹의 침범에 맞서 군주에 대한 충성을 지키며 장렬한 죽음을 묘사한 『몰든의 전투』 (*The Battle of Morden*)에서도 군주에 대한 충성과 신의는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진다:

Deað bið sella/ eorla gehwylcum/ þonne edwitlif. (Morden 178-80)

[죽음은 각각의 용사에게 있어 굴욕스런 삶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노라]

전투에서의 비겁함과 동족의 죽음을 복수하지 않는 행위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고대 게르만 용사들과 『오딧세이』에 등장하는 용사들의 공통된 도덕률로 작용하게 된다(Rieu 160).

이와 같은 영웅시에서 다루어지는 굴욕을 기반으로 하는 영웅주의 행동철학은 『가원경과 녹색기사』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목베기 게임(beheading game)에 임한 가원경은 생명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녹색기사와의 마지막 목베기 게임에서 녹색기사와의 약속을 어기고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성주 부인의 말에 녹색 띠를 성주인 녹색기사에게 건네지 않고 허리에 두르고 게임에 임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나중에 약속을 어긴 사실을 깨달은 가원경은 심한

수치심에 어찌할 바를 모르며 기사도의 명예를 저버린 자신을 질책하게 된다 (Sir Gawain 2429-40, 2505-15).

이러한 굴욕을 기반으로 하는 영웅주의 행동철학은 와드 파크(Ward Park)가 지적한 ‘굴욕의 문화’의 유산(Park 127)으로 간주되지만 굴욕과 상반된 의미를 지닌 명예는 영웅시와 기사도 문학에서 더욱 비중 있는 도덕물로 다루어진다.

『베오울프』의 전반부(시행 1-2199)에서는 명예를 둘러싼 영웅적 경쟁의 식이 주를 이루는 반면 후반부에서는 주인공 베오울프가 왕이 되어 화룡과의 격투 끝에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영웅적 행위를 다루고 있다. 영웅주의 사회에서는 기독교와 달리 영혼의 영속성을 믿지 않고 살아 있는 동안 용사가 이룩한 영웅적 행위가 후대의 사람들에게 의해 세세토록 칭송되어질 때 그것을 명예로 여기며 동시에 생의 최대 가치로 생각한다. 즉, 명예는 그들에게 있어 불멸성을 지닌 영혼인 것이다(Burrow 126-28). ‘운명’의 의미를 지니는 현대영어 doom은 고대영어 *domr*에서 유래하며 *dom*은 고대 스칸디나비아어인 *domr*에서 파생된다. 현대영어 doom은 ‘운명’의 의미를 지니지만 이에 상응하는 *dom*과 *domr*은 ‘명예’ 또는 ‘영광’의 의미를 지닌다. *Dom*과 *domr*는 사후에 붙여지는 도덕적 판단을 의미하며 기독교 이전의 용사들에게는 ‘영혼’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BT). 주인공 베오울프 역시 자신의 말을 통해 이러한 영웅주의 행동철학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Ure æghwylc sceal ende gebidan
 worolde lifes; wyrce se þe mote
domes ær deape; þæt bið drihtguman
 unlifgendum æfter selest. (Beo 1386-89)

[우리 각자는 이 세상에서 생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자는 죽기 전에 명예를 얻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후 그 용사에게 남겨질 최상의 일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행동철학에 충실하여 영웅적 죽음을 맞이했던 베오울프는 ‘명예를 가장 열망하신 분’(lofgeornost)이라는 최대의 찬사를 얻게 된다. 하지만 용사에게 주어지는 명예는 상대적으로 뛰어난 무용의 결과이기 때문에 대

부분의 경우 그와 견주어지는 상대방 용사가 필요하게 된다. 명예나 자존심을 둘러싼 갈등 구조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영웅시의 두 용사나 로망스의 두 기사 사이에 벌어지는 설전의 형태로 전개되며 ‘자존심 꺾기’와 ‘정체성 훼손’ 그리고 ‘영웅적 경쟁의식’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이러한 설전 방식은 호메로스 문학에서 그 유형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후기 영웅시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된다. 초기 형태의 설전은 『오딧세이』(*The Odyssey*)의 8권인 <페니키안 게임>(The Phaenician Game)에 등장하는 오딧세우스(Odysseus)와 그의 무술 경기 참여를 독려하는 페니키아인들 사이에서 발견된다. 오랜 전투 생활과 긴 항해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오딧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가던 중 풍랑을 만나 페니키아 왕국에 상륙하게 된다. 오딧세우스 일행이 머무는 동안 왕국에서는 운동경기가 진행된다. 그러자 오딧세우스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던 페니키아인들은 그의 무용과 기량을 직접 목격하기 위해 그를 시합으로 이끈다. 하지만 심신이 지친 오딧세우스는 더욱이 아내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고국에 대한 향수로 인해 만사에 의욕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한 운동 경기에 하등의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오딧세우스의 태도에 페니키아의 용사인 라오다마스(Laodamas) 먼저 오딧세우스에게 경기에 참여할 것을 재차 권한다. 오딧세우스가 계속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번에는 유리알루스(Euryalus)가 오딧세우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무례한 말을 쏟아놓는다. 이 과정에서 유리알루스는 이상적인 영웅의 이미지와 정반대인 비겁하고 용기 없는 실패한 용사의 이미지를 부각시켜 오딧세우스의 영웅적 자존심을 건드린다: “나는 그대를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경기자로 간주할 수가 없노라. 대신 그대를 상선의 선장정도로 간주할까 하노라— 획득한 물건들이 가져다주는 이익이나 계산하며 집으로 귀향하는 별 볼일 없는 뱃사람 말일세. 절대로 그 누구도 그대를 진정한 용사로 여기지 않을 걸세”(Rieu 240).

경기를 거부하며 무관심으로 일관하던 오딧세우스는 유리알루스가 자신의 명예 그리고 용사 정체성에 회의를 표명하자 즉시 화를 내며 경기에 참여한다. 물론 오딧세우스는 모든 경기에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신의 명성과 일치하는 진정한 영웅의 진면목을 과시한다. 무기력 속에 경기를 거부하던 오딧

세우스의 영웅적 기개를 환기시킨 촉매제는 다름 아닌 오딧세우스의 명예와 자존심을 자극하여 그로 하여금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화술이었다.

영웅주의 시대 용사에 있어 명예 혹은 자존심은 자신의 생명과 같은 소중한 것이므로 그들은 죽기를 각호하고 단호하게 나서게 된다. 이 장면에서 끌어낼 수 있는 진정한 영웅상은 바로 유리알루스와 라오다마스의 말이 의도하는 말과 행동의 일치 즉, ‘손과 발을 사용한 행동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용사에게 불멸의 명성을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다’(Dodds 80)가 될 것이다. 이러한 행동 철학은 도즈 교수가 정의한 ‘굴욕의 문화’에 입각한 영웅주의의 도덕적 행동규범과 일치함을 보인다. 도즈 교수에 의하면 용사는 그가 이룩한 성공적인 업적에 의해 판단되며 어떠한 모험도 성공하지 못할 경우 그가 참여한 모험은 무가치하며 그러한 실패는 굴욕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Dodds 28-50). 이러한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명예와 자존심은 『오딧세이』에서 설전(舌戰)의 양상을 띠며 전개된다. 먼저 오딧세우스와 상반된 위치-영웅시나 로망스에 적용되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유리알루스와 라오다마스는 오딧세우스의 과거 명성(명예)을 언급한다. 이어서 그들은 오딧세우스가 현재에 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명성에 회의를 품는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심에 타격을 입자 오딧세우스는 자신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그들의 말을 반박하며 즉각 행동에 나선다. 『오딧세이』에서 보여 지는 설전 양상은 공격과 반격의 구도를 보여주지만 오딧세우스는 명성과 일치하는 자신의 기량을 입증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신에게 굴욕감을 주었던 유리알루스와 라오다마스의 명예나 자존심을 훼손하는 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웅적 경쟁의식을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베오울프』에서는 더욱 정교한 설전이 예이즈족인 베오울프와 덴마크의 용사 운페르드(Unferth)사이에 전개된다. 타국에서 온 베오울프가 자신들이 물리치지 못한 괴물을 격퇴하겠다는 호언장담을 늘어놓자 자존심이 상한 운페르드는 베오울프에게 자신이 잘못 알고 있는 베오울프의 과거 실패담을 상기시키며 호언장담을 자제하고 격투의 승리로써 영웅적 자질을 입증하라는 우회적 일침을 가한다.

Ⅲ. 운페르드와 베오울프의 설전

Eart þu se Beowulf, se þe wið Breca n wunne,
 on sidne sæ ymb sund flite,
 ðær git for wlenca wada cunneðon
 ond for dolgilpe on deop wæter
 aldrum neþdon? Ne inc ænig mon,
 ne leof ne lað, belean mihte
 sorhfullne sið, þa git on sund reon:
 þær git eacorstream earmum behton,
 mæton merestræta, mundum brugdon,
 glidon ofer garsecg; geofon yþum weol,
 wintrys wylmum. Git on wæteres æht
 seofon niht swuncon; he þe æt sunde oferfla,

hæfde mare mægen. Þa hine on morgentið
 on Heaðo-Ræmes holm up ætbær;
 ðonon he gesohte swæsne eþel,
 leof his leodum, lond Brondinga,
 freoðoburh fægere, þær he folc ahte,
 burh ond beagas. Beot eal wiðþe
 sunu Beanstanes soðe gelæste.
 Donne wene ic to þe wursan geþingea,
 ðeah þu heaðoræsa gehwær dohte,
 grimre guðe, gif þu Grendeles dearest
 nihtlongne fyrst nean bidan. (*Beo* 506-528)

[그대가 넓은 대양에서 브레카와 수영 시합을 벌였던 베오울프인가? 그대들은 자부심에 넘쳐 바다에 도전했고 과도한 허세로써 깊은 바다 속에 그대들의 목숨을 내걸었었지. 그대들 둘이 바다 수영을 감행했을 때 친구나 적 그 누구도 슬픔을 초래하는 그 모험을 말릴 수 없었지. 그대들은 바다물결을 감싸 안고 항로를 헤쳐나갔지. 바닷물결을 양팔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파도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지. 대양에는 파도가 일었고 겨울 바다는 세차게 파동쳤지. 자네들은 칠 일 밤이나 세찬 물결 속에서 분투

했지. 기력이 더 센 브레카는 그 수영에서 자네를 앞질렀지. 그리고 아침이 되자 그는 바닷물결에 의해 헤어드램의 해안으로 밀려왔지. 브론딩인들의 땅인 그 소중한 고국에 도착한 그는 아름다운 성채에 다다라 그곳에서 백성과 궁궐 및 보물들을 소유하게 되었지. 베안스탄의 아들 브레카는 자네와의 맹세를 충실히 이행했네. 그러므로 어느 전쟁에서나 그 무서운 격랑을 헤쳐낸 자네라고 할지라도 감히 자네가 가까이에서 그런 꼴을 밤새도록 기다린다면 나는 그대가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되리라고 예견하네.]

외지에서 온 용맹스런 베오울프가 덴마크의 괴물을 퇴치하겠다고 하자 덴마크의 용사인 운페르트는 이러한 베오울프를 접대하는 향연장에서 베오울프의 심기를 건드리는 동시에 향연장의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어투로서 분위기를 경직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운페르트는 덴마크를 구하겠다고 온 베오울프에게 매우 무례한 언사를 던지고 있으므로 ‘불협화음’ 혹은 ‘평화의 파괴’라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 (Bloomfield 411). 하지만 그가 사용한 핵심어들을 영웅주의 행동철학과 영웅들 사이에 팽배한 경쟁의식의 관점에서 분석하게 되면 영웅주의를 규명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오히려 운페르트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견지해 온 영웅주의 행동철학을 우회적이 언사를 사용하여 심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운페르트의 의중은 수영시합에 참여한 베오울프와 브레카에 대한 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서두에서 운페르트는 베오울프가 젊은 혈기에 의해 무모한 바다 수영시합에 참여했다고 질책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하지만 이러한 무모한 용맹심에 대한 질책이 베오울프뿐만 아니라 수영 상대자인 브레카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한다. 고대 영어 양수형 *git*(you two)는 베오울프와 브레카를 동시에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동시에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의 주체자로 간주된다. 이어서 운페르트의 연설이 길어지면서 양수형인 *git*는 *he*(브레카)로 변하면서 브레카가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주어의 급격한 변화는 베오울프 수영에서 승리한 브레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다. 이제 브레카는 ‘브론딩인들의 땅인 그 소중한 고국에 도착한 그는 아름다운 성채에 다다라 그곳에서 백성과 궁궐 및 보물들을 소유하게 되었지’ 라는 운페르트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비난의

대상에서 이제 코미타투스의 이상적인 영웅으로 변모하게 됨을 알 수 있다. *Swæsne eþel* (fatherland), *freoðoburh*(stronghold), *folc*(people), *beagas* (treasures) 이 네 요소는 코미타투스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서 수영시합에서 승리한 브레카가 금의환향하여 이상적인 코미타투스의 영웅으로 부각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순간에 독자들은 바로 얼마 전 까지만 하여도 브레카가 베오울프와 함께 무모하고 어리석기까지 한 바다 수영의 당사자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브레카는 이제 비난의 대상에서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 혹은 호언장담한 자신의 맹세를 행동으로 입증하는 이상적인 영웅으로까지 추앙되고 있는 것이다: *Beot eal wið þe sunu Beanstanes soðe gelæste*(베안스탄의 아들 브레카는 자네와의 맹세를 충실히 이행했네 (Beo 523-524).

영웅주의 사회에서의 진정한 영웅은 말(맹세)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words)과 일치한 행동(deeds)으로 즉, 말과 행동이 일치했을 때 진정한 영웅이 탄생되는 것이다. 바다 수영시합 전에 베오울프와 브레카는 아마도 경기 혹은 전투 전에 용사들이 흔히 하는 호언장담(맹세) 즉, ‘내가 반드시 이 시합에서 이길 것이다, 혹은 시합에서 너를 꺾을 것이다’와 같은 맹세를 토했을 것이다. 그런데 승리의 결과는 베오울프가 아니고 브레카에게 돌아갔다고 운페르드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운페르드는 표면적으로 브레카를 내세워 이상적인 영웅의 이미지-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용사상-을 투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웅주의 행동철학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즉 용사는 자신이 말한 바를 실천-맹세한 바를 행동으로 입증하면-하면 시합이나 전투의 동기가 어찌되었든 성공한 용사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베오울프에게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즉 ‘베오울프 그대는 그대가 브레카에게 한 맹세를 지키지 못했으므로 즉, 시합에서 졌으므로, 진정한 용사의 대반열에서 탈락했네’라는 암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묵시적 경고는 운페르드의 마지막 말에서 극명하게 구현된다.

“그러므로 어느 전쟁에서나 그 무서운 격랑을 헤쳐 온 자네라고 할지라도 감히 자네가 가까이에서 그렌델을 밤새도록 기다린다면 나는 그대가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되리라고 예견하네.”

다시 이 말은 ‘자네가 브레카와의 시합에서 졌으므로(그대의 무용이 별 볼 일 없다는 사실이 행동으로 입증되었으므로) 오늘 밤 그렌델과 맞서 싸운다하더라도 결국은 패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예측하네’ 라는 속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운페르트는 베오울프든 브레카든 그들이 젊은 혈기에 무모하게 바다 수영에 참가한 자체를 비난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그 수영시합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그 수영시합에 참석한 브레카도 비난의 화살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브레카는 운페르트에 의해 진정한 영웅으로 묘사되며 아낌없는 찬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와드 파크 교수가 지적한대로 운페르트는 베오울프의 ‘영웅적 자질을 검증’하고 있는 것일 지 모른다(Park 213). 위에서 지적한대로 운페르트의 연설은 브레카의 영웅적 업적을 찬양함으로써 자신의 영웅관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주의 철학관이 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페르트의 말이 향연장의 분위기를 망치는 지극히 부정적인 말투로 간주되는 것은 운페르트의 연설 중 몇 개의 핵심어가 영웅주의와 연계되어 잘못 해석되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어원에 입각하면 *onband beadurune* 는 ‘비밀스런 분쟁의 말을 터뜨렸노라’ 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이는 운페르트의 말이 어떤 비밀스런 분쟁의 말(혹은 불씨)를 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운페르트의 말이 어떤 비밀과 동시에 분쟁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는 핵심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에 대응한 베오울프의 태도를 관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운페르트가 사용한 일련의 어휘들이 베오울프가 참가한 바다수영이 무모하고 젊음의 혈기에서 비롯된 성급함에서 비롯됨을 암시하고 있다. ‘무모함’, ‘성급함’, ‘어리석음’ 등의 의미는 *for wlence, for dolgilpe, nepdon, belean, swuncon* 등에서 볼 수 있다. *Wlenco(e)*는 ‘vainglory’ 혹은 ‘foolish pride’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정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게 된다. 하지만 『베오울프』 전체에서 사용되는 *wlenco*는 경우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웅관을 나타내는데 사용되

1) *onband beadurune* 'unbound a battle-rune, disclosed a hidden quarrel, began a bellicose speech' Klaeber, *Beowulf*, Notes 150. *beado(u)* battle, *run(e)* 'a whisper, a mystery, a secret, a rune, a letter-BT, OHG *gi-runi* 'secret', Winfred P. Lehmann, *A Gothic Etymological Dictionary*, Leiden-E. J. Brill- 1986, p. 287, R32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덴마크 왕국을 구하기 위해 덴마크에 당도한 베오울프를 보고 덴마크의 용사 울프가르는 베오울프가 ‘용사적 기개’로 충만하여 흐로드가르 왕을 찾게 되었다고 믿는다: *Wen' ic þæt ge for wlenco, nalles for wræcsidum, / ac for higeþrymmum Hroðgar sohton* (Beo 338-39) (나는 당신들이 결코 망명자로서가 아니라 높은 용사적 기개와 담대한 마음으로부터 우리 흐로드가르 왕을 찾아왔다고 생각하오.)

여기서 *wlenco*는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고 찬사의 의미와 함께 ‘bravery, courage, high spirit’ 등의 영웅주의 사회에서 용사가 당연히 지녀야 할 필수적 자질의 요소를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긍정적 의미의 *wlenco*는 히엘락(Hygelac) 왕의 마지막 전투에 임하는 왕의 영웅다운 기개를 기리는 부분에서도 반복된다(Beo 1205-1207).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 아니면 최소한의 중간적인 의미-즉, 행동의 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것-가 베오울프와 브레카의 수영시합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운페르드는 브레카의 수영시합 동기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던지지 않고 맹세-영웅적 기개(*wlenco*)의 발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동시에 진정한 영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베오울프나 브레카가 수영시합 전에 혹은 수영에 임한 동기를 엿 볼 수 있는 *wlenco*는 하등의 부정적 의미를 품고 있지 않게 되며 오히려 영웅주의 사회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영웅적 자질의 징표로 간주된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영시합의 결과에 따라 진정한 용사의 자질은 판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wlenco*의 해석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영웅주의 행동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어휘가 긍정적으로 그 의미가 전환될 수 있는데 바로 *dolgilpe*를 들 수 있다. *wlenco*에 비해 *dolgilpe*는 더욱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것처럼 보인다. *dolgilpe*는 두 의미의 합성어인데 앞부분의 *dol*은 ‘audacious’ ‘foolish’, ‘silly’, ‘daring’의 의미를 지니며 *gilpe*는 ‘pride’, ‘boasting’, ‘arrogance’의 의미를 지닌다. 고대영시 <Genesis>에서는 *dol*의 의미가 극히 부정적으로 쓰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항하는

사탄의 과도한 욕심 혹은 야망을 묘사하기 때문이다(Genesis: 294-295, 340-342). 하지만 종교적 관점에서 언급되는 *dol*은 영웅주의 행동철학에서 중요시되는 용사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되기도 한다. 위그라프는 베오울프의 업적을 기리면서 *dollicra*라는 어휘를 사용한다.

forðam he manna mæst mærdða gefremede/ dæda dollicra. (Beo: 2645-2646)

[그 분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용맹스러운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dol*은 ‘어리석은’의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audacious’나 혹은 ‘daring’의 의미와 직결되게 된다. 즉, 영웅주의 행동철학에서 용사들의 주요한 자질인 모험에 임하여 행동으로 자신의 평소 호언장담을 행동으로 입증해야하는 데 이때 발휘되는 용사들의 정신력 내지 영웅적 호기, 기개를 의미한다 할 수 있겠다. 종교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일부 시와 달리 영웅시에서는 *dol*이 긍정적 의미로 쓰이게 된다. 하지만 위의 *wlenco*에서와 같이 *dol* 역시 용사의 진면목-여기서는 베오울프와 브레카의 수영실력-이 판별될 때까지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gylp* 역시 영웅주의를 표방한 시에는 달리 해석될 수 있다. *gylp*는 명사 ‘boast’, ‘boasting’, 동사 *gy(i)lpan* ‘boast’, ‘rejoice’ 의미를 지니며 *gilpcwide*와 같은 합성어는 ‘boasting speech’의 의미를 지닌다. 이 경우에서도 기독교 정신을 담고 있는 종교적 시에서는 *gilp*나 *gilpword* ‘boastful speech’ 등이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예: Genesis: 260-63). 하지만 『베오울프』 같은 영웅시에서는 그 의미가 달라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헤레모드(Heremod)는 코미타투스의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을 상실하고 실패한 지도자로 묘사 되는데 이 경우에 *on gylp* ‘proudly’, ‘honorably’가 사용된다: *nallas on gylp seleð/ fætte beagas* (Beo: 1749-50) [황금으로 도금된 고리들을 당당하게 나누어주지 않고]

영웅주의 사회에서 군주의 중요한 덕목은 휘하의 용사들에게 보물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것이다. 즉, 관대함은 군주의 이상적 자질에 속하게 되는데 헤레모드는 그렇지 못했음을 묘사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해 *on gylp*는 영웅적 지도자의 자질을 나타내는데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오울프 시에서 *dol*이

나 *gylp*는 용사의 자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자주 쓰이게 된다(Beo 2519-21). ‘Audacious 혹은 daring speech’는 모험에 임하기 전에 용사가 토해내는 허장성세의 일환으로서 전혀 부정적인 의미를 품지 않으며 영웅주의 사회의 관행으로 여겨진다. 다만 허장성세 혹은 담대한 발언에 그의 행동이 못미쳤을 경우 그 용사는 진정한 영웅의 반열에 서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dol* 이나 *gylp* 역시 때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영웅시에서는 모험의 결과에 따라 중립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영웅주의 행동철학과 운페르드가 사용한 핵심어들의 어원적 의미를 분석해 보면 이러한 핵심어들은 최소한 중립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베오울프를 향한 운페르드의 설전(Flyting)은 고도의 영웅주의 행동철학을 담고 있으며 다시 풀어쓰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대 베오울프여, 호언장담은 그만두고(실제로 베오울프는 영웅주의 관습에 따라 덴마크 왕국에 도착하여 자신이 괴물인 그렌델을 감히 물리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반복했음) 브레카와 같이 실제 행동으로서 그대의 자질을 입증하기 바란다.’ 이 과정에서 운페르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극히 실증적 예를 들어 베오울프의 영웅적 자질에 일침을 가한다: “감히 자네가 가까이에서 그렌델을 밤새도록 기다린다면 나는 그대가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되리라고 예견하네.”

베오울프의 자질은 물론이요, 베오울프의 정체성에 회의를 표명함으로써 도전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은 ‘비밀스런 분쟁을 터뜨렸노라’는 표현을 빌어 우회적으로 운페르드의 의중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이 도전을 받게 되자 베오울프는 곧장 되받아치는 화술을 전개한다. 곧 이어지는 설전 양상은 ‘비밀스런 분쟁을 퍼뜨렸노라’라는 논평을 통한 시인의 의도인 ‘기대유발’ 즉, 독자들로 하여금 운페르드와 베오울프 사이에 본격적인 기(氣) 싸움이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베오울프는 반격을 통하여 자신은 브레카와의 수영시합에서 결코 지지 않았으며 사실은 수영시합에서 자신이 훨씬 우월했음을 알리고 마지막으로 운페르드의 자질 및 정체성에 대한 반격을 가한다.

Breca næfre git
 aet heaðolace, ne gehwæþer incer,
 swa deorlice dæd gefremede
 fagum sweordum no ic þæs fela gylpe
 þeah ðu þinum broðrum to baban wurde,
 heafodmægum; þæs þu in healle scealt
 werhðo dreogan, þeah þin wit duge.
 Secge ic þe to soðe, sunu Ecglafes,
 þæt næfre Grendel swa fela gryra gefremede,
 atol æglæca ealdre þinum,
 hynðo on Heorote, gif þin hige wære,
 sefa swa searogrim, swa þu self talast; (*Beo* 583-94)

[브레카나 자네 둘 중 누구도 빛나는 검을 들고 전투에서 이같이 대담한 행적을 이루지 못했네. 나의 성취에 대해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네. 하지만 자네는 그대의 형제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네. 그대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 말일세. 그대가 지략이 뛰어난다 한들 그 일 때문에 그대는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 날 수 없을 걸세. 에즈라프의 아들이여, 그대에게 사실을 말하건데 그대가 떠벌리는 것처럼 그대가 용맹스럽고 몸과 마음이 전투에 대한 열정으로 사로잡혔다면 저 무시무시한 괴물 그렌델이 헤오로트 궁궐에서 그대의 군주에게 그렇게 잔혹한 해를 끼치지 못했을 걸세.]

베오울프가 반격에 사용한 화술은 여러 면에서 운페르드의 화술을 상기시키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건드린 운페르드의 공격에 매우 격분한 베오울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라오다마스의 반격에 격한 반응을 보이며 행동으로 경기에 임하는 오딧세우스를 연상시킨다. 영웅 베오울프는 자아롭고 친절한 자로 추앙되는데 그의 이러한 성격은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가 도전을 받을 때에 한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베오울프의 태도는 자신의 명예가 도전을 받을 때 훼손된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영웅주의 행동철학을 반영하는 것이다. 운페르드의 화술은 구체적인 실증에 입각한 삼단논법의 체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운페르드는 베오울프가 브레카와의 수영시합에 실패했으므로 이번의 모험에서도 베오

울프가 또 다시 실패할 것으로 예측하는 있는 것이다. 여기에 맞서 베오울프는 ‘되받아치기’ 화술을 전개하는데 이 역시 운페르드의 화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며 앞으로 전개될 모험에서 상대방이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것은 영웅시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설전의 양상이다 (Parks 49). 베오울프 역시 운페르드가 과거에 친족을 살해한 영예롭지 못한 과거를 상기시키면서 동시에 수 없이 자행된 괴물 그렌델의 습격에 당당하게 맞서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운페르드가 사용한 예측성 화술을 전개한다: “운페르드 그대가 지금 나를 폄훼하는 것처럼 기개 넘치고 ‘용맹스럽고 또한 몸과 마음이 전투에 대한 열정으로 사로잡혔다면’ 자네의 고국인 덴마크는 지금과 같이 괴물에 의해 황폐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네.” 되받아치기 과정에서 보여 지는 베오울프의 화술은 운페르드가 사용한 무례함의 정도를 훨씬 능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베오울프는 운페르드가 친족을 살해했고 또한 괴물 그렌델의 침입에 속수무책으로 일관했다는 두 가지 치명적인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그가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용사의 기본적 자질인 무용을 상실한 실패자라고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베오울프의 이러한 발언은 베오울프가 브레카와의 수영시합에 진 사실을 근거로 베오울프가 새로운 모험에 실패할 것이라는 운페르드의 화술과 비교했을 때, 공격과 비난의 수위가 한 층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베오울프의 언사는 그가 덴마크에 도착하여 보여 준 일련의 태도와 비교했을 때 매우 과격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 덴마크에 도착한 베오울프는 괴물과의 전투를 위한 호르드가르 왕의 허락을 얻기까지 매우 신중하고 정중한 언사를 사용하며, 더욱이 덴마크 용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고도의 책략적 언사를 사용한다. 하지만 운페르드의 공격성 발언에 베오울프는 자신의 추락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전에 보여 준 모습과 달리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매우 단호한 어조로 대응한다. 이러한 급격한 베오울프의 태도는 영웅주의 사회에 팽배해 있는 자존심과 명예를 둘러싼 용사들 간의 ‘경쟁의식’(rivalry-consciousness)이 어느 정도 중요한 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기사도(the Code of Chivalry)에 투영된 설전의 양상

명예와 자존심을 둘러싼 설전(舌戰)은 『베오울프』와 같은 영웅시에서만 보여 지는 것이 아니고 기사도를 핵심 주제로 다루는 『가위경과 녹색기사』에서도 발견된다. 아더왕 궁궐에 크리스마스 절기가 도래하자 성대한 향연이 펼쳐지고 원탁기사와 귀부인들은 흥겨운 잔치에 빠져 든다. 향연이 진행되는 중 갑자기 녹색의 갑옷을 두른 녹색기사가 향연장으로 돌진하여 느닷없이 목베기 게임을 제안한다. 오늘 자신의 목을 친자가 1년 후에 자신이 내리치는 도끼날에 목을 내놓아야한다는 목베기 게임을 제안한다. 하지만 거인 같은 녹색기사의 위용에 겁에 질린 아더왕의 원탁기사들은 선뜻 목베기 게임에 나서지 못한다. 그러자 녹색기사는 목베기 게임으로 원탁기사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그들이 가장 소중히 하는 자존심과 명예를 건드린다.

What, is þis Arþures hous,' quoth þe habel þenne.
 Þæt al þe **rous** rennes of þur3 ryalmes so many?
 Where is now your **sourquydrye** and your conquestes,
 Your **gyrdellayk** and your **greme** and your **grete wordes**?
 Now is þe reuel and þe renoun of þe Rounde Table
Ouerwalt wyth a worde of on wy3es speche, (*Sir Gawain* 309-12)

[“이런, 세상에! 그 명성이 저 멀리까지 퍼져나간 아더의 궁궐이 맞는가!
 그대들의 궁지와 전승의 영예,
 또한 그대들의 전투 혼이나 분노, 허장성세는 모두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제 원탁의 여흥과 명예는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일언에 의해 팽개쳐졌도다.
 모두가 일격이 가해지기도 전에 겁에 질려 움츠러들었구나!”]

원탁기사의 자존심을 훼손하기 위해 사용한 녹색기사의 화술은 『오딧세이』에서 보여 지는 라오다마스와 유리알루스 그리고 베오울프의 자존심과 명예를 자극한 운페르트의 말을 그대로 상기 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 세 작품 사이에는 설전의 양상에서 또한 설전에 사용되는 어휘에 따라 차이를 보여주게

된다. 일차적으로 어휘의 사용에 있어 녹색기사와 『베오울프』의 운페르드와 베오울프는 『오딧세이』의 라오다마스과 유리알루스와 달리 영웅주의 행동철학을 대변하는 핵심어휘들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탁기사의 자존심을 겨냥한 녹색기사의 말에 원탁기사는 마비된 기사도의 이미지로 추락하게 된다. 거기에는 영웅주의 용사들과 같이 무용을 생명으로 여기는 기사들의 위용은 찾아 볼 수 없고 오직 ‘겁에 질려 움츠러진’ 나약하고 비겁한 겁쟁이만 남게 된다. 이러한 기사도의 마비된 이미지는 당사자인 아더왕과 원탁기사들에 참을 수 없는 치욕을 제공했을 것인데 여기에 동원되는 핵심어휘들은 곧 바로 고대 영웅시 『베오울프』의 영웅주의 행동철학을 규정하며 동시에 운페르드와 베오울프의 설전에 사용되는 어휘들이다: *rous* ‘명예’, *sourquydrye* ‘자존심, 프라이드’, *grydellayk* ‘용맹스러움, 전투 혼’(Davis 186) *greme* ‘분노’, *grete wordes* ‘허장성세(bragging words), 호언장담, 과도한 맹세’. 녹색기사가 언급한 중세영어 *rous* ‘명예’는 고대영어 『베오울프』에서는 고대영어인 *lof* 나 *dom* 에 해당하며 용사들이 최고의 가치로 소망하는 덕목으로 간주된다. *grydellayk* ‘용맹스러움, 전투혼’ *greme* ‘분노’ 은 영웅주의 시대 용사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정신 자세를 표방하며 고대영어 *stout* ‘용맹스러움’에 해당한다. 녹색기사가 나중에 언급한 *grete wordes*는 현대영어 bragging words ‘호언장담하다, 허풍떨다’(Barron 45)에 해당하며 고대영어인 *ofermod*, *wlonc*, *gylp*, *beot*, 에 해당하며 ‘허장성세, 자만, 지나친 자랑, 과도한 맹세, 지나친 자부심’등의 의미에 해당한다(BT). 이 어휘들은 용사가 자신의 결의와 모험에서의 승리를 다짐할 때 발하는 말을 의미하며 특히 *beot*는 신하가 군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충성 결의 시 발하는 말을 뜻하기 때문에 군주와 신하의 결속을 다지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중세영어인 *grete wordes* 나 이에 상응하는 의미를 지닌 고대영어 *ofermod*, *wlonc*, *gylp*, *beot* 는 겸손을 강조하는 종교적 시에서는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모험의 동기보다는 즉각적인 행동의 결과가 중요시 되는 영웅주의 사회와 기사도에서는 용사나 기사와 기본적인 자질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어휘들에 긍정의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아니면 부정의 의미를 적용할 것인가는 모험에 참여한 용사나 기사와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까지 유보되어진다. 이

는 다시 말해 영웅이나 기사가 발한 호언장담에 대한 가치 판단은 모험의 동기나 도덕적 정당성에 있지 않고 자신이 행한 호언장담과 일치하는 모험의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모험 전 진행된 허장성세에 대한 판단은 모험의 결과를 알 수 있을 때 까지 유보된다는 뜻이다. 이러한 도덕률은 종교적 도덕성을 강조하는 ‘양심의 문화’에 위배되며 행동을 통한 결과주의를 중시하는 ‘굴욕의 문화’의 유산에 속하게 된다(Dodds 254). 여기에 적용되는 좋은 예는 이미 『베오울프』의 <베오울프와 운페르드의 설전>에서 진행되는 운페르드의 베오울프를 향한 공격적 화술을 통해 살펴보았다. 운페르드는 베오울프가 수영시합 전에 행한 ‘브레카와의 수영시합에서 반드시 이기겠다’는 ‘허장성세’(ofermod, wlonc, gylpword, beot)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고, 수영시합에서 패함으로써 자신이 발한 ‘허장성세’와 일치하지 못하는 그의 실제 능력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매우 비슷한 상황이 『가윈경과 녹색기사』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녹색기사는 원탁의 기사들이 수많은 모험과 전투를 통해 획득한 전승의 명예가 다름 아닌 현재 자신이 원탁기사의 자존심을 침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호언장담’이나 ‘허장성세’ 또는 ‘과도한 결의’ 등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음을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 녹색기사가 피부은 공격성 화술의 근본 취지는 『베오울프』에서 보여 지는 운페르드의 화술과 같이 모험 전에 행해진 원탁기사의 호언장담 혹은 과도한 맹세-‘군주인 아더왕과 원탁기사의 명예를 위해 목숨을 걸고 그 어떤 일도 불사하겠노라’-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현재 벌어진 상황 즉, 목베기 게임이라는 새로운 모험이 제시되었는데 이전에 행한 ‘과도한 맹세’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비겁함을 비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녹색기사가 제시한 목베기 게임으로 인한 아더왕과 원탁기사의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의기소침으로 인한 행동 지연은 녹색기사가 나타나기 전 향연장에서 행한 아더왕 자신의 맹세(호언장담)- ‘기인한 모험을 직접 경험하기 까지 만찬을 취하지 않겠다’-를 고려한다면 모순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아더왕의 목베기 게임에 대한 행동 지연 태도는 엄격한 영웅주의나 기사도의 관점에서 살펴 보면 비기사도적인 처사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비기사도적인 아더왕의 태도에 변화를 주며 행동으로 대응하는 기사도 정신을 환기시키는 것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적대적 관계

에 있는 녹색기사의 치욕적인 언사이다. 자신과 원탁기사의 명예와 긍지를 직설적으로 공격하는 녹색기사의 말에 아더왕은 자신과 원탁기사의 자존심과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목베기 게임에 즉각 나서게 된다.

Wyth þis he la3es so loude þæt þe lorde greued:
 þe blod schot **scham** into his schyre face
 and lere;
 He wex as wroth as wynde,
 So did alle þæt þer were.
 Þe kyng as kene bi kynde
 Ðen stod þat stif mon nere, (*Sir Gawain* 316-22)

[이 말과 함께 그가 던진 커다란 웃음소리에 왕은 기분이 몹시 상했으며 바로 이 **수치**로 인해 그의 아름다운 얼굴과 뺨에는 피가 솟구쳐 올랐다. 그는 그 곳에 있는 모든 이들과 일반적으로 폭풍우 같은 분노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리하여 왕은 그의 용맹스러운 천성의 기질대로 단숨에 그 기사 쪽으로 몸을 향했다.

“맹세코 당신의 요구는 어리석기 그지없소. 이제 당신이 그 어리석은 요청을 해 온 바대로 그 뜻을 이루게 될 것이오. **이곳의 그 누구도 그대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대의 전투용 도끼를 부디 나에게 넘기길 바라오. 내가 그대의 부탁을 들어주리라.” (*Sir Gawain* 323-27)]

침묵을 지키던 아더왕은 자신의 자존심과 결부된 말을 듣게 되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단호한 어조로 원탁기사의 용맹스러움을 옹호-‘이곳의 그 누구도 그대의 말을 두려워하지 않으니’-하고 나서며 즉각적인 행동을 취하게 된다. 아더왕이 보여준 이러한 단호한 태도는 『오딧세이』의 오딧세우스나 『베오울프』의 베오울프가 보여준 설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세 작품 공히 ‘자존심 격기’나 ‘경쟁의식’과 같은 모티브를 바탕에 깔고 있으며 손상된 자존심을 회복시키기 위해 ‘되받아치기’ 화술을 사용하고 있다. 시인은 아더왕이 당한 굴욕감을 표현하기 위해 중세영어 *scham* ‘수치’ 혹은 ‘굴욕’이라는 어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고대영어에서 사용되는 *hynðo* ‘수치, 굴욕’에 해당한다.

『베오울프』 같은 영웅시에서 다루어지는 *hynðo* 는 영웅주의 행동철학과 밀접한 연관을 지니기 때문에 심대한 함의를 품게 된다. 영웅시에서 의미하는 *hynðo* 는 단순한 정서상의 반응을 넘어서 영웅과 비영웅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상징성을 지니게 된다. 성공적인 영웅 혹은 기사의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동원되는 어휘가 *lof* 명예라면 실패한 용사란 기사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사용되는 어휘는 *hynðo*나 *scham* 이 될 것이다. 영웅주의 행동관에 따르면 용사가 군주의 죽음을 복수하지 못할 경우 그 용사는 씻을 수 없는 *hynðo* ‘치욕’ 을 당하게 되지만 반대로 군주의 죽음을 복수하게 되면 그 용사는 후대에 칭송되는 *lof* ‘명예’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전투에서 비겁하게 도망가게 된 다거나,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고 지게 되는 경우도 치욕에 해당되기 때문에 ‘치욕’과 ‘명예’는 영웅과 비영웅의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사용되는 핵심어이다. 영웅주의 용사나 기사도의 기사가 수치를 느꼈다고 스스로 인정하게 된다면 여기에는 자신들의 행동이 온전한 영웅주의나 기사도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더왕이 느낀 치욕의 과정은 아직 본격적인 게임이 전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잠시 보류된다. 아더왕의 경우, 비록 목베기 게임에 즉각 참여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함을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하기 때문에 영웅주의에서 다루는 *hynðo* 와는 약간의 거리감이 존재하게 된다. 이는 아더왕의 경우와 달리 영웅주의에서는 모험에 참가한 용사의 비겁한 행위와 같은 결과로 인한 수치를 다루기 때문이다.

V. 결론

『베오울프』에서 다루어지는 영웅주의는 군주와 신하 사이에 체결되는 묵시적 계약관계를 근간으로 하며, 여기에는 충성과 복수 그리고 명예와 자존심 또한 수치를 둘러싼 영웅심리가 작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고대 영웅시의 행동규범이 중세의 로망스 문학인 『가윈경과 녹색기사』에서 다루어지는 기사도와 일맥상통함을 보이고 있어 이 두 작품 사이, 더 나아가 영웅시와 중세의 로

망스 사이에 존재하는 문학적 상이점과 동질성에 대한 탐구를 가능하게 한다. 더욱이 명예를 둘러싼 공통된 행동규범을 다루는 외에도 이 두 작품은 주제를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고대영웅시에서 자주 발견되는 ‘설전’ 혹은 ‘자존심 꺾기’와 같은 독특한 기법을 도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명예나 자존심을 둘러싼 갈등 구조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영웅시의 두 용사나 로망스의 두 기사 사이에 벌어지는 설전의 형태로 전개되며 ‘자존심 꺾기’와 ‘정체성 훼손’ 그리고 ‘영웅적 경쟁의식’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이러한 설전 방식은 호메로스 문학에서 그 유형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후기 영웅시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자리 잡게 된다. 먼저 오딧세우스와 상반된 위치-영웅시나 로망스에 적용되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유리알루스와 라오다마스는 오딧세우스의 과거 명성(명예)을 언급한다. 이어서 그들은 오딧세우스가 현재에 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명성에 회의를 품는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심에 타격을 입자 오딧세우스는 자신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그들의 말을 반박하며 즉각 행동에 나선다. 『오딧세이』에서 보여 지는 설전 양상은 공격과 반격의 구도를 보여주지만 오딧세우스는 명성과 일치하는 자신의 기량을 입증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자신에게 굴욕감을 주었던 유리알루스와 라오다마스의 명예나 자존심을 훼손하는 언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영웅적 경쟁의식을 더 깊이 있게 다루는 『베오울프』에서는 더욱 정교한 설전이 예이츠 족인 베오울프와 덴마크의 용사 운페르드 사이에 전개된다. 베오울프가 반격에 사용한 화술은 여러 면에서 운페르드의 화술을 상기시키고 있다. 자신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건드린 운페르드의 공격에 매우 격분한 베오울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데 이러한 모습은 라오다마스의 반격에 격한 반응을 보이며 행동으로 경기에 임하는 오딧세우스를 연상시킨다. 운페르드의 화술은 구체적인 실증에 입각한 삼단논법의 체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운페르드는 베오울프가 브레카와의 수영시험에 실패했으므로 이번의 모험에서도 베오울프가 또 다시 실패할 것으로 예측하는 있는 것이다. 여기에 맞서 베오울프는 ‘되받아치기’ 화술을 전개하는데 이 역시 운페르드의 화술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과거의 사건을 언급하며 앞으로 전개될 모험에서 상대방이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는 것은 영웅시에 사용되는 전형적인 설전의 양상이다.

『가원경과 녹색기사』에서 보여 지는 설전은 ‘자존심 꺾기’ 나 ‘경쟁의식’과 같은 모티브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오딧세이』나 『베오울프』와 큰 차이를 두지 않지만 상대방의 과거경력을 기반으로 전개되는 ‘되받아치기’ 양식에서 『베오울프』와 많은 차이점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인 용 문 헌

- 이동일 역, 『베오울프』.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0.
- 이동일 역, 『가원경과 녹색기사』.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10.
- Bloomfield, M. W. & Dunn, C. W. *The Role of the Poet in Early Societies*. Cambridge: Cambridge UP, 1989.
- _____, “Beowulf and Christian Allegory: An Interpretation of Unferth.” *Traditio* 7 (1949-51): 410-15.
- Bosworth, Joseph and T. Northcote Toller, eds. *An Anglo-Saxon Dictionary*. Oxford: Oxford UP, 1882-98.
- Brodeur, Arthur G. *The Art of Beowulf*. Berkely: U of California P, 1971.
- Clark Hall, John R. *Beowulf and The Finnsburg Fragment*. trans. with prefatory remarks by J. J. R. Tolkien.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63.
- Davis, Norma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2nd rev. ed. of J. J. R. Tolkien and E. V. Gordon. Oxford: Clarendon, 1967.
- Dodds, E. R. *The Greeks and the Irrational*.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51.
- Garmonsway, G. N., trans. *Beowulf and its Analogues*. London: Dent, 1968.
- Jack, George, ed. *Beowulf*. Oxford: Clarendon, 1994.
- Klaeber, Fr. *Beowulf and the fight at Finnsburg*. 3rd ed. with 1st and 2nd supplements. Boston, MA: Heath, 1950.
- Lee, Alvin A. *The Guest-Hall of Eden*. New Haven: Yale UP, 1972.
- Lehmann, Winfred P, ed. *A Gothic Etymological Dictionary*. Leiden: Brill, 1986.
- Lord, Albert B. *The Singer of Tales*. Cambridge: Harvard UP, 1960.
- North, Richard. *The Origins of Beowulf: From Vergil to Wiglaf*. Oxford: Oxford UP, 2006.
- Parks, Ward, *Verbal Duelling in Heroic Narrative: The Homeric and Old*

- English Tradi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P, 1990.
- Rieu, E. V, trans. *Homer: The Odyssey*. Harmondsworth: Penguin, 1970.
- Rosier James L, ed. *Essays: Studies in Old and Middl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he Hague: Mouton, 1970.
- Shippey, T. A. *Old English Verse*. London: Hutchinson University Library, 1978.
- Smithers, G. V. "Destiny and the Heroic Warrior in *Beowulf*." *Philological* 37 (1967): 215–45.
- Wrenn, C. L, ed. *Beowulf with the Finnesburg Fragment*. London: Harrap, 1973.
- Wyatt, A. J. *Beowulf with The Finnsburg Fragment*. New ed. revised with introduction and notes. Cambridge: Cambridge UP. 1933.
- Barron, W. R. J.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Manchester: Manchester UP, 1974.
- Waldron, R. A, ed.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London: York Medieval Texts, 1970.
- Burrow, J. A, ed.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London: Penguin, 1972.
- Horgan, A. D. "Gawain's Pure Pentaugel and Virtue of Faith." *Medium AEvum* 56 (1987): 310–16.
- OED [*The Compact Edition of 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Ed. Sir James Augustus Henry Murray. Oxford: Oxford UP, 1971.
- Moorman, Charles. *The Works of the Gawain Poet*. Jackson: UP of Mississippi, 1977.
- Spearing, A. C. *The Gawain Poet: A Critical Study*. Cambridge: Cambridge UP, 1970.
- Davis, Norman.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2nd ed. Oxford: Clarendon, 1967.
- Winy, James, ed.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Ontario: Broadview, 1997.

Cawley, A. C. and Anderson, J. J, eds. *Pearl, Cleanness, Patience,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London: Everyman's Library, 1976.

Abstract

A Study on the Aspects of Flyting in Heroism and the Code of Chivalry

Lee, Dongjill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theme of pride or glory and the pattern of verbal sparring become major common features in *Beowulf* and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though there exists a huge time-gap between the two works. The social background of *Beowulf* is the society of Germanic heroic ideology conventionally known as the *comitatus*, in which duties of loyalty and revenge become a binding force on the individual. Members of *comitatus* are to a large extent subordinated to an obligation generated by the social ethos. In this society, heroes are constantly called on to respond to an ineluctable obligation to prove themselves in war. This tradition of 'shame culture' is brought home again to the minds of the audience of *Beowulf* and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in particular when they hear of Unferth's taunting speech towards Beowulf; in this Unferth completely ignores Breca's previous attempt in the swimming contest, based on youthful boasting, as with a panegyric tone he gives much credit to Breca's glorious achievement. In terms both of the classical heroic moral standard and that of Unferth, Breca's attempt should not be condemned at all as long as he proves his martial prowess in particular terms of success. With the same consequences, Beowulf's attempt, regardless of its motivation, can hardly be criticized, nor does Unferth blame Beowulf for his youthful adventure. This kind of action-oriented moral principle is well exemplified both in *Beowulf* and *Sir Gawain and the Green Knight*. The rivalry-consciousness

existing between duelling warriors forms a major component for the verbal sparring and is well presented in the verbal exchanges between Beowulf and Unferth, and the Green knight and King Arthur or Sir Gawain.

Key Words: flying(verbal sparring), reputation, pride, rivalry consciousness, heroism and chivalry

설전, 명예, 자존심, 경쟁의식, 영웅주의와 기사도

논문접수일: 2014.1.26

심사완료일: 2014.2.16

게재확정일: 2014.2.23

이름: 이동일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영문학과

이메일: dongbeo@hanmail.net

